

<특 집 :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구별



■ 남 미 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 mynam@kredl.co.kr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독서진흥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1.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을 구별하자.

모든 '독서 진흥정책'의 주요 내용은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 독서운동들은 '독서운동'이 곧 '독서교육'이라는 오해를 낳게 했다.

'책을 많이 읽히자.'는 독서운동이고, '무엇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는 독서교육이다. 독서운동이 하드웨어라면 독서교육은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그동안 우리 독서운동들은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무엇을'이나 '어떻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항상 '왜 읽어야 하는 가'를 강조하면서 '양적 독서'를 제시하고, 다독왕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결과를 체크했다. 어떤 책을 얼마나 즐겁게 읽는지, 정확하게 읽는지, 감동 있게 읽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독서운동은 일회적인 이벤트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 국민은 그 많은 독서운동 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국민을 남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크고 작은 독서운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출판

문화협회가 이끌어 온 ‘독서새물결운동’이 있고, 2003년에 시작된 부산시교육청의 ‘부산 북스타트운동’이 있다. 그리고 2005년 3월부터 대구시교육청 산하 300여 학교를 위시하여 전국 단위학교 700여교가 참가하고 있는 ‘아침독서운동’과 문화관광부의 ‘책키북키운동’이 있다. 이런 독서운동들이 성공하려면 왜 읽어야 하는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제시가 충분해야 한다고 본다.

## 2. ‘독서량 늘리기’보다 ‘고급독자 만들기’ 정책이 되어야 한다.

왜 국민독서를 강조하는가? 왜 학생들의 독서활동 기록을 내신에 반영하려고 하는가? 왜 3,000억원을 학교 독서교육에 투입하는가? 이런 모든 질문의 답은 독서량 늘리기가 아니라 고급독자 만들기이다.

흔히 독자를 분류할 때, 고급독자와 대중독자로 나누어서 말하게 된다. 고급독자는 책을 읽을 때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사고력을 동원하여 자기화 할 수 있는 독자를 의미한다. 이런 독자는 스스로 비판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의 단계를 거치면서 책을 읽는 독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할 국민 독서진흥은 독서량을 늘리는 것에서 고급독자 만들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양적 독서’에서 ‘질적 독서’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독서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정책도 양적인 면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질적인 독서교육을 통하여 고급독자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되기를 바란다.

## 3. ‘한국인은 독서를 싫어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읽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읽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독서교육개발원(KREDI)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50만 명의 독서능력을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에 어휘력, 비판력, 추리력이 낮은 학생군이 책읽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 학생들일수록 책을 보면 머리가 딱딱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호소는 학생들이 선천적으로 읽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능력이 낮아서 책읽기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즐겁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만의 소망은 아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즐겁고, 행복하고 자발적으로 독서하고 싶어 한다. 일부러 책을 안 읽는 학생은 없다. 읽을 능력이 부족하여 책읽기가 싫어진 학생들이 있을 뿐이다. 도서관 시설이 좋아도, 내신에 반영한다고 해서 책읽기가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그 책을 이해하고, 추리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즐거워진다.

#### 4. 추천도서목록, 왜 말이 많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사회는 추천도서목록에 관한 한 몇 가지 애상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일어난 하지만, <소녀경 사진>에서부터 최근의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반발까지 목록이 발표되면 말이 많다. 좋은 책을 골라 널리 읽히자는 목록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일까? 한마디로 발표되는 목록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첫째, 이해집단이 목록을 만들었을 때는 공정성을 잃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책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만들어낸 목록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둘째,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목록은 유해하다. 이런 도서목록에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책만 선정하는 경향이 짙다. 이런 목록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그 폐해가 매우 크다.

셋째, 연구 없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추천도서목록은 신뢰성을 잃는다. 이런 경우, 다른 도서목록을 베끼거나 출판사의 자체 홍보자료를 그대로 베껴놓은 경우가 많다.

넷째, 지나치게 신간 일변도의 도서목록은 위험하다. 신간 일변도의 목록은 시간과 공간의 검증은 거친 명작이나 고전들이 빠지고 새로 나온 검증되지 않은 책들로만 채워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을 뿌리 없는 가치관의 소유자로 만든다.

이와 같은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정책에서 제시하는 도서목록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건강하고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 도서목록으로 이해관계를 삼지 않는 단체나 인물, 비전문가 보다는 독서교육 전문가로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시간을 거쳐 추천도서목록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성, 신뢰성, 효과성을 가진 반듯한 추천도서목록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 5. '독서의 즐거움은 자유방임 독서'는 오해이다.

독서운동이나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즐겁게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문이나 매스컴에는 국가가 나서서 독서교육이나 독서평가를 하면 '즐거운 독서, 행복한 독서, 자발적인 독서'가 죽는다는 식의 의견을 피력한 의견들이 있었다. 그저 가만히 두면 즐겁게 읽을 텐데, 왜 독서교육을 강제로 하려 하느냐, 그저 즐겁게 읽기만 하면 되는데 왜 독서활동 평가를 하느냐 등등의 우려의 목소리였다.

'즐겁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만의 소망은 아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즐겁고, 행복하고 자발적으로 독서하고 싶어한다. 일부러 부모님이나 선생님 속을 썩이려고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이란 없다. 읽을 능력이 부족하여 책읽기가 싫어진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교육하면 즐거워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독서교육 전문가들의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다. 독자가 책을 이해해야 즐거워진다. 책을 즐겁게 읽게 하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6. '독서평가는 독서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독서교육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환영의 목소리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종합하여 볼 때,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독서는 즐겁고 자발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왜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 평가하면 부담이 되어 오히려 독서가 싫어질 것'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가 시험이 되면 안 된다. 독서평가를 하면 독서가 문제풀이식이 되어 또 하나의 공부가 된다.'는 견해였다. 이 두 견해를 종합하면 '독서평가는 일종의 시험으로 학생들을 독서로부터 멀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이 된다.

물론 독서평가가 고통스러운 시험이 되어 학생들에게서 독서흥미를 빼앗아간다면, 그런 독서평가는 무익하다. 그러나 평가가 즐거울 수 있다면? 독서평가는 정답이 있는 교과 시험과는 다르다. 즐거운 독서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서활동 평가는 지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독서활동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제 앞으로 그런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갖가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 7. '독서 전문 방송국' 개관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서현황과 문제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서관이 부족하고, 국민이 책읽기에 취미가 없고, 독서교육을 실시할 유능한 전문교사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요약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중매체를 통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동안 MBC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와 KBS의 'TV 책을 말하다.'가 보여준 대중 매체의 위력을 볼 때, 21세기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국민독서진흥정책의 성공은 독서전문방송국을 개관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독서전문방송국은 위의 프로그램들처럼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유아를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정기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독서전문방송국은 이 정책이 추진하고자 하는 독서소의계층을 없애고, 건전한 독서교육을 전국 방방곡곡에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의 '놀이, 먹자판 여가문화'를 '독서문화관'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파워로 작용할 것이다. (국)